

LARRIEU CORDA ROC-ROUSSEY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3인의 프랑스 작가, 장 프랑수와 라리우(회화), 마우로 코르다(조각), 장 피에르 후후세(회화)가 한국을 방문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이들의 작품을 통해 최근 프랑스 현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4월 24일 오페라 갤러리 서울에서는 <앤디 워홀과 보테로> 전시에 이어, 프랑스 작가 3명을 소개하는 기획전시 <영혼의 에디컬포스>가 열렸다. 이 기획 전시를 기획한 김영애 실장은 "국내 관객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싶었다"며 더불어 "오페라 갤러리 전속작가들의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시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세 작가는 자연(라리우), 신체(코르다), 신화(후후세)라는 서로 다른 매체와 방식을 활용하지만 '문화, 예술의 기본요소를 변형시키는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가로, 마주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 주목받고 있다. 현재 오페라 갤러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명의 전속작가가 인문학이다. 파리, 뉴욕, 베니스, 홍콩 등 세계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는 오페라 갤러리와 전속작가가 되면 아티스트는 모든 작품 활동에 대한 완벽한 지원을 받게 된다. 갤러리가 그림을 구매하는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작품은 오페라 갤러리에서 관리하고, 작가는 앞으로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9년부터 오페라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후후세는 이에 대해 "질 디양 회장과 완벽히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작가가 오로지 그림 그리는 일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준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